



■ '광고 문학관' 만든 광주 오덕렬 교장

“시대를 품은 선배들의 文香 한자리에”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괜히 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교내에 출신 문인들의 자료들을 모아 문학관을 조성한 광주 오덕렬(62·13회) 교장의 말이다. 도서관이 자리잡은 세종관 2층 110여평 공간에 마련된 '광고 문학관'에서 지난 4일 오 교장을 만났다.

1951년 개교한 광주고를 졸업한 문인들은 졸업이 60여명. 문학관 입구의 정면 벽에는 이들 문인들의 사진이 졸업년도 별로 걸려 있다. 중간에 있는 유리 진열장에는 이들이 출간한 책, 육필 원고, 학창 시절 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

문학관에는 상록집 외에도 문예부의 전통을 이었던 동인지 '영도(靑度)'(1955), '광고시집'(1958) 등이 세월을 잊은 채 '도도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바래대로 바래 표지가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었다.

文人 60여명 육필원고 등 전시  
이젠 '광고역사기념관' 조성할 터



‘칸의 여인’ 전도연  
대중상영화제  
특별상 받는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전도연이 제44회 대중상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는다. 대중상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전도연에게 한국영화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높이 평가해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대중상영화제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시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삶 있는 동안 희망 있습니다”  
호킹 박사, 루게릭병 박승일 코치에 격려 글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65)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자신과 같은 불치병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박승일 전 프로농구 현대 모비스 코치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가수 방실이 뇌졸중 중태  
서울시스터즈 출신의 가수 방실이(본명 방연순·44)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장덕균, 이명박·박근혜 정치풍자집 출간  
개그작가 장덕균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정치풍자집을 출간했다.



전남대 개교 55주년 기념 '용봉인의 밤' 행사가 7일 오후 6시 전남대 체육관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강정채 전남대 총장, 김국웅 전남대총장회장 등 5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염홍철 중기특위위원장  
'중기현황과 정책' 강연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광주·전남경제영차협회 초청으로 8일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에서 열리는 금요 조찬연수회에 참석, '중소기업현황과 정책'에 대해 강연한다.

“동포들 가슴앓이 싹 씻겨졌으면”  
美 순회 공연중인 소리꾼 장사익씨

“전에 오케스트라와 공연(共演)했을 때 극장이 크고 아름다워 언젠가 한번 제대로 놀아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꿈이 이뤄졌습니다.” 미국 4개 도시 순회공연 가운데 첫 번째인 뉴욕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지난 5일(현지시간) 시카고에 도착한 소리꾼 장사익(58)씨는 시카고의 명소 오디토리엄 시어터에 대한 기대감부터 나타내며 특유의 너털웃음을 지었다.



듣고서 다 씻어내리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다”고 소박한 희망사를 고백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